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19-13
(2019.11.14.)

2019 중국 국방백서 분석과 평가

정 재 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차 례

핵심 요약
Ⅰ. 서론
Ⅱ. 중국 국방백서 발간현황과 주요 특성
Ⅲ. 2019 중국 국방백서 내용 분석
Ⅳ. 주요 정책 시사점

※ 본 정책브리핑은 필자가 2019년 9월10일 세종연구소 제17차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환해 작성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핵심 요약]

- 19차 당 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토대로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民軍) 합동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 중국군을 2050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시킨다는 강군꿈(強軍夢)전략을 제시함

- 2019년 7월24일 중국의 국방분야에 대한 종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발간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 대회 이후 발표된 최초의 종합적인 국방백서로 2만 7천자 분량이며 주요 내용으로 국제안보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됨

-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목표로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이행을 통해 중국 특색 강군 노선을 견지하여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함

-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비 지출에 대해 세계 주요국과 견주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및 1인당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라 평가하며 향후 경제발전 수준과 첨단무기개발, 노후 장비교체와 장비현대화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나간다고 밝힘

- 이번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역내 군사력 증강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드배치, 일본은 전후질서 탈피,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관계 공고화 등을 시도하여 역내 질서 불안정성 야기를 지적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많은 투자를 밝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 내부 부패척결, 군제도 개혁, 군대 체질 개선, 군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본격화함

• 현재 중국군은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현대화 군대 달성을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전략무기(중장거리 핵·미사일) 현대화, 비대칭 무기 강화, 신속대응작전능력, 정보전(IO/IW), 사이버 분야 등에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연구개발로 미국과의 군사기술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

•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전략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배치, 역내 미사일방어(MD), 중거리핵전력조약(INF)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가능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미(한미일)3자 관계 등을 놓고 중러 및 북중관계 공고화를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선제적 개입과 대응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대응,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대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군사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미중간 군비경쟁, 한반도/대만/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있어 보다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됨

• 한국은 우호적인 미중관계 촉구, 조화로운 한중-한미관계 유지, 안정적인 북미/남북 관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미, 대중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판문점 선언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논의도 적극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과 창의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2019 국방백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打胜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함

• 향후 중국군 개편과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적, 전술적 대응을 마련하고 중국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활발한 소통 차원에서 한중 국방안보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미중관계 악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본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과의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역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다시금 출현되지 않도록 다자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구축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

I. 서론

○ 19차 당 대회를 통해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토대로 육·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民軍) 합동능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 중국군을 2049년까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시킨다는 강군꿈(強軍夢) 전략을 제시함

– 이미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기계화/정보화를 위한 30만 감군, 군의 합동성 강화, 지역출신 중심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군구현대화, 중앙의 통제를 강화한 지휘구조 개편, 육군 중심에서 육해공과 전략지원군, 사이버군, 우주군 등을 새롭게 신설함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본격적인 강군(強軍)전략 차원에서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 및 정보화 달성, 2035년까지 군의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수준 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군사전략 달성 청사진을 밝힘

–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 강군强军) 노선 견지, 국방과 군 현대화 전면 추진"으로 신시대에 맞는 강군 건설,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체계 구축,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打胜仗), 군민융합(軍民融合)을 역설하며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이 아닌 2049년까지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함[1)]

○ 현재 중국의 군사전략은 '신형세하 적극방어군사전략(新形勢下積極防禦軍事戰略)'으로 여기에서 '신 형세'란 미국을 포함한 한미, 미일동맹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적극방어'란 기본적으로 방어태세를 유지하다가 적이 공격해 오면 단호하게 반격을 가한다는 후발제인(後發制人)과 선제공격이 상호융합된 개념을 의미함[2)]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대만 및 동/남중국해 등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경우 먼저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상대가 먼저 군사적 분쟁을 야기한다면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입장임[3)]

---

1) 중국의 군민융합(軍民融合)발전전략은 군비지출의 확대를 유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상당히 유사하나 국방부와 기업의 전략적 제휴로 설명되는 미국과는 달리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첨단무기 현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전략상 후발제인을 견지하나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전략을 내포함

3) 향후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A2/AD 전략으로 미군의 전력투사를 매우 빠른 시일 내로 저지하여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구상임

○ 최근 중국의 국방력 증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구심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9년 7월24일 중국은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백서를 발표한 바 1998년 이후 발표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 대회 이후 발표된 최초의 종합적인 국방백서로 평가됨

- 이번 백서는 총 2만 7천자 분량으로 국제안보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됨

○ 이번 중국 국방백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기본적인 국방정책 개념, 목표,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보고 중국군의 국방비 지출 및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통해 중국의 국방정책 방향 및 안보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짐

-물론 중국의 경우 국방관련 사안에 대한 공개된 것이 많지 않고 투명성이 낮다는 한계와 다소 홍보적 성격이 강하고 공개된 내용조차도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 지적들도 있으나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파악이 가능한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중국의 국방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아닐 수 없음[4)]

II. 중국 국방백서 발간현황과 주요특성

1. 중국 국방백서 발간 현황

○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軍事戰略, military strength)을 외부세계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강한 사회주의국가 특징인 전략적 전통(戰略傳統, strategic tradition)을 갖고 있었으며 주변국들의 과도한 중국 위협론 제기, 열등한 군사력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군사안보 분야 내용 공개를 꺼려함[5)]

- 더욱이 냉전을 거치고 90년대 중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이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면서 중국은 국방 및 안보 분야 내용 공개가 자칫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가능성을 우려함

○ 중국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12권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주제의 백서를 발간한 바 1995년 전문 주제형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中國的軍備控制與裁軍)을 시작으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제목으로 종합형 국방백서

4) 하도형, "중국의국방백서와국방정책 변화에 관한 고찰,"『중국연구』제58권(2013), p. 194.
5) 설인효-문성태, "중국국방백서분석:평화공세와군사적부상의정당화,"『신아세아』제19권4호(2012), pp. 195-196

를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2013년과 2015년. 2019년에는 전문 주제형 국방백서, 2017년에는 안보백서의 새로운 형식 백서를 각각 발간함[6)]

- 일부 서방언론매체에서는 중국의 국방백서 발표를 놓고 정치적 의도를 선전하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중국 정부와 공산당 지도부, 국방당국 인식변화와 전략적 의도 등을 담고 있어 중국군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음[7)]

○ 중국이 전향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 바 첫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투명성 요구에 대한 강한 압력[8)], 둘째 주변국들의 중국위협론 불식[9)], 셋째, 중국의 군사현대화 성과 자신감[10)]으로 설명이 가능함

- 과거 중국의 군사력이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군사력 억제기제(deterrence mechanism) 작용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급격한 군비증강과 군사현대화로 인해 군사전략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일정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함[11)]

○ 2019년 7월24일 중국의 국방분야에 대한 종합백서인 '신시대의 중국 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발간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 대회 이후 발표된 최초의 종합적인 국방백서로 2만 7천자 분량임

- 이번에 발표된 2019 중국 국방백서 제목은 '신시대 중국 국방' 으로 국제안보정세,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

6) 1998년에 처음으로 발간된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에서는 매우 간단한 내용만을 작성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분량과 세부항목, 각종 도표 등이 늘어나면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7) 지난 2008년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에 대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선의의 거짓말(white lies)로 지칭하며 중국의 국방백서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함. 'white Lies,' *The Economist*(22 January 2009) 참조.

8)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로부터 줄곧 국방전력을 외부에 공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급소한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 투명성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함

9) 중국은 '소프트 파워 대외정책(china's soft power foreign policy)'일환으로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제기하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박창희, "중국 국방백서(中國的國防)를 통해 본 중국의 국방정책," 『국방정책연구』 제27권3호(2011), pp. 108-109.

10)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군사현대화(military modernization)성과에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대내외 국방인식 과 국방정책뿐만 아니라 국방예산, 군구조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하기 시작함

11) 중국 위협론 대응차원에서 일종의 담론(談論)전파를 통해 우호적이고 유리한 대내외 국방안보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 시작함. 김강녕, "중국의국방안보백서발간의추이와함의," 『한국과 국제사회』 제3권1호(2019), p. 44.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등 총 6개장으로 이루어짐

-특히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목표로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고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이행을 통해 중국 특색 강군 노선을 견지하여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한다고 적시함

[표 1] 1995-2019년 이후 12개 중국 국방안보 관련 백서의 목차 구성 고찰

연도	백서명	목차 구성
1995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中國的軍備控制與裁軍)	서언(前言)
		Ⅰ.인류평화와발전의촉진(促進人類和平與發展)
		Ⅱ.군인100만명감축(裁減軍隊員額一百萬)
		Ⅲ.낮은수준의국방비유지(維持低水平國防開支)
		Ⅳ.군사기술의평화적이용(和平利用軍工技術)
		Ⅴ.민감한자재및군사장비반출의엄격한통제(嚴格管制敏感材料與軍事裝備的轉讓)
		Ⅵ.국제적군비통제와군축의적극추진(積極推動國際軍備控制與裁軍)
1998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국제안보정세(國際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국방력건설(國防建設)
		Ⅳ.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Ⅴ.군축-군비통제(軍控與裁軍)
2000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국방력건설(國防建設)
		Ⅳ.군사력건설(軍隊建設)
		Ⅴ.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Ⅵ.군축-군비통제(軍控與裁軍)
2002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무장역량(武裝力量)
		Ⅳ.국방력건설(國防建設)
		Ⅴ.군사력건설(軍隊建設)
		Ⅵ.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Ⅶ. 군축-군비통제(軍控與裁軍)
2004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중국특색군사혁신(中國特色軍事變革)
		Ⅳ.국방비및국방자산(國防經費和國防資產)
		Ⅴ.병역제도(兵役制度)
		Ⅵ.국방동원및예비전력건설(國防動員和後備力量建設)
		Ⅶ.국방과학기술공업(國防科技工業)
		Ⅷ.민군관계(軍隊與人民)
		Ⅸ.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Ⅹ.군축-군비통제및비확산(軍控、裁軍與防擴散)
2006	**중국의 국방 (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국방지도-관리체계(國防領導管理體制)
		Ⅳ.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Ⅴ.인민무장경찰(人民武裝警察部隊)
		Ⅵ.국방동원및예비전력(國防動員和後備力量)
		Ⅶ.국경및연안경비(邊防海防)
		Ⅷ.국방과학기술공업(國防科技工業)
		Ⅸ.국방비(國防經費)
		Ⅹ.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2008	**중국의 국방 (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인민해방군의개혁발전(人民解放軍的改革發展)
		Ⅳ.육군(陸軍)
		Ⅴ.해군(海軍)
		Ⅵ.공군(空軍)
		Ⅶ.제2포병(第二炮兵)
		Ⅷ.인민무장경찰(人民武裝警察部隊)
		Ⅸ.국방예비전력건설(國防後備力量建設)
		Ⅹ.민군관계(軍隊與人民)
		Ⅺ.국방과학기술공업(國防科技工業)
		Ⅻ.국방비(國防經費)
		ⅩⅢ.국제안보협력(國際安全合作)
		ⅩⅣ.군축-군비통제(軍控與裁軍)
2010	**중국의 국방 (中國的國防)**	서언(前言)
		Ⅰ.안보정세(安全形勢)
		Ⅱ.국방정책(國防政策)
		Ⅲ.인민해방군의현대화건설(人民解放軍的現代化建設)
		Ⅳ.무장역량운용(武裝力量運用)

		Ⅴ.국방동원및예비전력건설(國防動員和後備力量建設)
		Ⅵ.군사법-제도(軍事法制)
		Ⅶ.국방과학기술공업(國防科技工業)
		Ⅷ.국방비(國防經費)
		Ⅸ.군사적신뢰구축(建立軍事互信)
		Ⅹ.군축-군비통제(軍控與裁軍)
2013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영(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서언(前言)
		Ⅰ.새로운정세,새로운도전,새로운사명(新形勢、新挑戰、新使命)
		Ⅱ.무장역량건설과발전(武裝力量建設與發展)
		Ⅲ.국가주권,안보,영토보전의수호(捍衛國家主權、安全、領土完整)
		Ⅳ.국가경제사회발전보장(保障國家經濟社會發展)
		Ⅴ.세계평화와지역안정유지(維護世界和平和地區穩定)
2015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서언(前言)
		Ⅰ.국가안보정세(國家安全形勢)
		Ⅱ.군대사명과전략적임무(軍隊使命和戰略任務)
		Ⅲ.적극방어전략방침(積極防禦戰略方針)
		Ⅳ.군사역량건설발전(軍事力量建設發展)
		Ⅴ.군사투쟁준비(軍事鬥爭准備)
		Ⅵ.군사안보협력(軍事安全合作)
2017	**중국의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서언(前言)
		Ⅰ.중국의아태안보협력정책주장(中國對亞太安全合作的政策主張)
		Ⅱ.중국의아태안보개념(中國的亞太安全理念)
		Ⅲ.중국과역내지역주요국가의관계(中國與地區其他主要國家的關系)
		Ⅳ.역내지역이슈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과주장(中國在地區熱點問題上的立場和主張)
		Ⅴ.중국의아태지역주요다자체제참여(中國參與亞太地區主要多邊機制)
		Ⅵ.중국의비전통적안보협력참여(中國參與地區非傳統安全合作)
2019	**신시대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	서언(前言)
		Ⅰ.국제안보정세(國際安全形勢)
		Ⅱ.신시대중국의방위적국방정책(新時代中國防禦性國防政策)
		Ⅲ.신시대군대의사명과임무이행(履行新時代軍隊使命任務)
		Ⅳ.개혁중의중국국방및군대(改革中的中國國防和軍隊)
		Ⅴ.합리적이고적절한국방비지출(合理適度的國防開支)
		Ⅵ.인류문명공동체구축적극적인이바지(積極服務構建人類命運共同體)

출처: 설인효-문성태, "중국국방백서분석:평화공세와군사적부상의정당화,"『신아세아』 제19권4호(2012), p. 198; 김강녕, "중국의국방안보백서발간의추이와함의,"『한국과국제사회』 제3권1호(2019), pp. 47-48; 中國國防部, "新時代的中國國防,"『中國政府網』을 참고하여 재구성 후 작성

2. 시진핑 시기 국방백서의 주요 특성

○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이래로 2013년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영(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2권의 전문 주제형 국방백서, 2019년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 1권의 종합형 국방백서가 발간되었으며 이어 2017년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주제로 1권의 안보백서가 발간됨[12)]

– 한편 그동안 발간된 중국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1995년에 최초로 발간된 전문 주제형 국방백서인 '중국의 무기통제와 군축(中國的軍備控制與裁軍)', 1998년부터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 2010년까지 발간된 종합형 국방백서 7권, 전문 주제형 국방백서 4권,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아태안보백서 1권을 합하여 총 12권의 국방안보 백서가 발간됨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2049년까지 싸워서 이기는 군대(能打仗、打勝仗)와 강한 중국 달성을 위해 경제력 못지않게 국방력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정치강군, 개혁강군, 과학기술 흥군, 법치강군을 촉구하며 강한 중국군 육성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2018년 1조 1,289억 위안(약 192조8,000억 원)으로 책정하여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전체 GDP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2010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약 1,100억불로 미국(약 6,800억불)의 1/6 수준이나 2016년에는 미국 국방비(5,960억불) 절반 수준인 2,150억불에 달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사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4년 12.2%에서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0%로 내림세를 보여 왔으나 군사비 전체총액은 지난해 1조 443억 위안을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까지 올라섬[13)]

○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49년까지 세계 제1위 군사대국 달성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군사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연평균 7% 이상 국방비 증액을 통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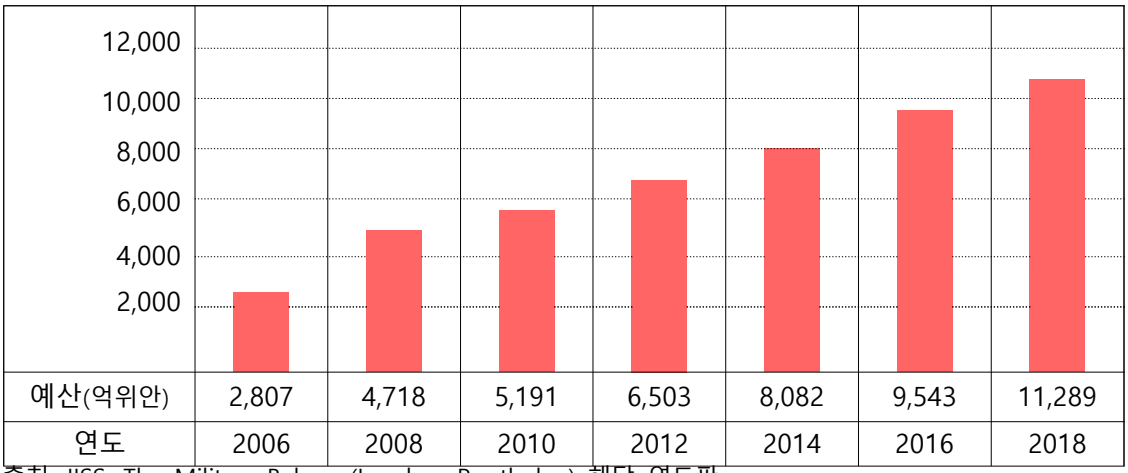
12)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국방백서의 형식상 변화는 종합형과 전문주제형을 교차적으로 발간하는 다른 국가들의 방식을 참고하여 기인했으며 향후 중국 국방백서는 종합형, 전문주제형, 안보정책백서를 교차적으로 발간할 가능성이 높음. 陳丹少將, "國防白皮書增信釋疑 海軍運用方式出現變化,"『中文國際』2013年 4月27日.

13)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2015년 10.1-12.2%, 2016-2018년 7.0-8.0% 비율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이제 미국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옴

핵 항공모함 건조, 첨단 스텔스전투기 양산, 미사일, 항공우주, 사이버 능력 강화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14)]

- 특히 최근 중국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핵 항공모함 및 첨단 구축함 건조, 스텔스 전투기양산, 탄도 미사일 개량 및 개발, 우주 항법위성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임
- 더욱이 현재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수준이고 GDP 대비 비중도 1.3%로 미국의 3%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한 첨단무기 확보 및 군사 능력 강화가 역내 질서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표 2] 2006-2018년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액



예산(억위안)	2,807	4,718	5,191	6,503	8,082	9,543	11,289
연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London: Routledge) 해당 연도판.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꿈 실현과 중화민족 위대한 중흥' 구호가 단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중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49년까지 두 개의 백년(两个百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과 연계하여 모든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역내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강한 자신감과 중장기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핵심이익 수호와 국방 현대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는 입장임

- 특히 주변지역 분쟁 및 국지전 수행에 부합하는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전쟁 이외 군사작전(MOOTW), 사이버전자통합전, 특수부대육성, 해군 육전대(해병대)창설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중임

14) 2018년 3월 전국인민 대표대회 보고에서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군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진핑 집권 이후 발표된 국방백서 3권과 안보백서 1권에 대해 살펴본다면 중국 국방 현대화 방향과 주요 특징과 변화 등을 도출이 가능함

[표 3] 2013-2019년 시진핑 시기 국방(안보)백서 주요 내용 비교

연도	백서명	주요 특징	이전 백서와의 주요 차이점
2013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영(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 새로운 제목인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으로 설정되었고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방 안보인식과 국방정책 변화, 군사개혁 등을 반영고자 시도함 - 중국위협론 불식을 위해 재난구호, 평화유지활동 등을 제시하며 중국군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7개 군구별 집단군 편성을 밝힘 - 그동안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핵무기 선제 불사용' 표현이 언급되지 않아 핵정책 변경 의구심을 불러 일으킴 - 기존 미국에 대한 전략적 방어 입지에서 벗어나 미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우회적으로 표현함	- 1998년부터2010년까지 중국의 국방백서 제목으로 줄곧 사용된 제목인 '중국의 국방'제목과는 다른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통상 연말에 발표와 달리 2013년 4월에 발표됨 - 그동안 국방백서에서 줄곧 기재된 국방정책, 국방개혁, 군사력현대화, 국방예산, 군축 등이 제외되고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한 운용 전문주제로 설정함 - 국가주권과 안보, 영토보전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베트남, 필리핀,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매우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
2015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	- 중국군의 사명과 전략적 임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자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에 대해 적극-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방어위주전략에서 공격-방어겸비전략으로 변화가 나타남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일본의 전후질서탈피, 테러리즘과 분열주의 등을 중국 안보 주요 위협 요인으로 명시함 - 중국군의 군사전략인 적극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진핑 지도부의 강군꿈을 강조함	- 시진핑 집권 3년차를 맞아 2015년 군사전략 주제로 국방백서를 발간한 것은 2015년 국방백서가 처음이며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7가지 언어로 발간됨 -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의 꿈실현과 2개의 백년을 첫 언급함 -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중국의 안보위협으로 처음으로 명시하였으며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등에 대한 우려를 제시함
2017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	-2017년 1월 발표된 백서는 아태지역에서 다자 및 양자간 각종 안보협력 등에 중국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함 -한반도 비핵화,사드배치,해상영유권분쟁 등에 중국의 입장을 설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중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류젠민 외교부 부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함 -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6자회담 복원을 통한 북한의 안보

		하고 있으며 핵심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함 - 한반도 비핵화실현, 한반도 평화와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위협을 첫 언급하며 사드배치 반대를 북핵문제 다음으로 언급함	적 우려 해소차원에서 제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 강조함 -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절대 양보 할 수 없다는 강한 투쟁의지를 보여줌 - 재난구조, 다국적 범죄, 사이버안보, PSI 등 비전통안보위협 역내국가 협력 강조함
2019	**신시대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	- 신시대 중국군 전략목표를 설명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강군 노선을 대내외에 공식화함 -미국의 인도-태평양 본격화, 한국 사드배치, 일본 재무장화, 호주의 인도-태평양연계를 통한 영향력 확대 등을 지적함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시작된 중국군 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군 규모, 작전 지휘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소개함	- 18차 당대회 이후 발표된 최초의 종합국방백서이자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진행된 중국군 개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함 - 중국 국방비 지출 관련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국방비율, 1인당 국방비 객관적으로 설명함 -중국의 해외이익 수호, 인류문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영향력 발휘를 강조함

출처: 김강녕,"중국의국방안보백서발간의추이와함의,"(2019), pp.51-60 ; "2013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2015 中國的軍事戰略";"2017中國的亞太安全合作政策";"2019新時代的中國國防,"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재정리 후 작성

Ⅲ. 2019 중국 국방백서 내용 분석[15]

1. 국제안보정세(國際安全形勢)

○ 국제전략정세의 중대한 변화

– 약 100년 만에 국제정세의 중대한 변화 시기를 맞이하여 강대국,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가간의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단일주의로 매우 불안정하고 갈등의 국제정세가 출현함

– 최근 미국의 패권강화차원에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조정, 단일주의정책 이행 등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강대국 경쟁 격화, 군비경쟁, 사이버, 우주, 미사일(MD) 분야 경쟁 격화로 전 세계 안보전략이 갈수록 악화됨

15) 中國國防部, "新時代的中國國防,"『中國政府網』2019年7月24日 발간된 전체내용을 필자가 개별 번역이후 다시 핵심내용 위주로 재정리하여 요약함

○ 아태지역 안보정세 전반적 안정

–세계경제와 전략적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역내 지역을 놓고 강대국간 세력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안보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함

– 최근 미국은 아태지역 內 새로운 첨단무기 배치, 군사개입 확대, 동맹국가들과의 군사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안보적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한국의 사드배치, 일본의 전후질서 탈피, 호주의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해 역내 전략적 안보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지역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에도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고 비판함

–일본은 군사안보정책 조정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위비 증강, 전후 질서 탈피 시도, 해외 군사력 투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더욱 공고화시켜 나가면서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강화함

○ 중국의 안보적 도전과 위협 증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정치안정, 민족대단결, 사회안정을 통해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각종 복잡하고 어려운 안보위협과 도전과제 등이 직면하고 있음

–대만독립 분열세력인 민진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인 92 공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탈 중국화와 점진적인 대만독립을 추진하여 양안관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함

–현재 중국의 국가평화통일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인 티베트 분리독립세력(藏獨) 및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세력(東突)활동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영토, 영해 분쟁 등도 여전히 존재함

○ 역내 군비경쟁격화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안보전략 재조정,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및 작전능력 향상 등으로 군비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미국은 군사기술 혁신 및 제도개혁 등을 통해 절대적 군사우위를 추구함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인공지능(AI), 양자정보,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기술들이 군사기술분야와 연계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 군비경쟁이 출현함

2.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新時代中國防禦性國防政策)

○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결연히 수호

- 외부세력의 침략을 저지 억제하고 당과 국가를 보위하고 인민과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대만독립세력(台獨), 티베트 분리독립세력(藏獨),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세력(東突) 등 분열세력을 타도하여 국가주권, 조국통일, 영토보전을 수호함
-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끝까지 수호하며 남/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및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방어적 무기배치, 동중국해 해역 순항 등은 모두 법에 의거한 국가주권 행사임
- 대만문제를 해결하여 국가통일을 완성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자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의 필연적 요구로 평화통일실현과 일국양제(一國兩制)방침을 끝까지 견지하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여 조속한 통일 실현

○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기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음 견지
- 신중국 성립 이후 70년 동안 중국은 어떠한 전쟁과 충돌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평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자발적으로 약 400만을 감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중국은 평화공존5원칙을 기초로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각국 인민들의 자주적 발전권익을 존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여 나가고 제3자의 내정간섭과 패권주의적 행위를 반대함

○ 신시대 군사전략방침 관철 이행
- 새로운 시대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방어, 자위(自衛), 후발제인(後發制人) 원칙하에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으며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人不犯我、我不犯人、人若犯我、我必犯人)"는 기조 아래 전쟁억제와 신속한 적극적 선제대응을 통해 상대를 제압한다는 군사전략임
-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철저히 실행하여 당과 국가전략에 의거 싸워서 이기는 군대인식을 갖고 새로운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군대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고 인민전쟁의 전략전술을 혁신하여 인민전쟁의 총제적 위력을 충분히 발휘함
- 중국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견지하며 최종적으로 핵무기의 전면금지 및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국가와도 핵무기 군비경쟁을 진행하지 않음

※ 현재 중국은 적극적 방어핵전략 기조 유지를 통해 타국의 핵공격 및 위협을 억제하며 전략적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함

○ 중국특색강군의 노선 견지

–신시대 중국 국방 및 군대건설은 시진핑 강군사상과 시진핑 군사전략사상 철저한 지도하에 정치건군(建軍), 개혁강군, 과학흥군(興軍), 의법치군(治軍)을 견지하며 싸우면 이기는 군대(能打仗、打勝戰)로 육성하며 기계화–정보화 융합발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군사역량 체계 구축함

– 신시대 중국 국방과 군대건설의 전략적 목표는 2020년 기계화–정보화 건설기본 실현, 전면적 군사이론 현대화, 군대조직구조 현대화, 무기장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2035년까지 국방군대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세계 일류군대로 육성함

○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

– 중국은 전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통해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에 의거 양자안보와 다자안보협력 체제추진, 글로벌 안보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함

– 중국군대는 국제책임과 의무이행을 적극 견지하고 국제평화유지, 해상호위, 인도주의 구조활동, 국제군비통제, 비확산협력강화, 국제분쟁정치해결강조, 반테러주의, 사이버 안보, 자연재해 등 전 세계 안보이슈와 각종 도전과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 발휘를 통해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공헌함

3. 신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 이행(履行新時代軍隊使命任務)

○ 주요 사명과 임무

– 중국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를 위한 전략적 버팀목 제공,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보존 수호를 위한 전략적 버팀목 제공, 국가해외이익수호를 위한 전략적 버팀목 제공, 세계의 평화와 발전촉진을 위한 전략적 버팀목 제공

○ 국가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

–중국군은 변경지역 파괴, 침투, 불법 범죄활동 등을 막기 위해 주변9개 국가들과 국경협력협정을 맺고 있으며 12개 국가들과 국경문제논의회의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국방부, 지역전구,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3단계 군사교류구조를 통해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각종 실무회담, 합동순찰과 훈련을 실시함

–중국은 동/남중국해, 황해 등 주요 해상 및 도서지역 방위, 해상활동과 권익 등을 확보하고 각종 해상안보위협과 주권도전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이래 해상경비순찰 4600회, 維權執法(해상권익수호법집행)7.2 만번을 실시함

○ 전시대비태세 상시 유지

– 중앙군사위원회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의 엄격한 지휘 아래 연합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전시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다양한 위기돌발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함

–중국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들의 전시대비개념을 강화하고 엄격한 전시대비 훈련 제도 실시, 철저한 전시대비 훈련, 양호한 전시대비 유지, 각종 순찰 및 전시대비 훈련 실행함

○ 실전화 군사훈련 전개

–2012년 이후 모든 부대들은 전략적 임무 아래 목표 지향성 훈련, 군부군종별 훈련, 여단 규모 이상 연합실전화 훈련 등 약 80여 차례 훈련을 실시하여 각 전구별(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연합작전 능력을 크게 제고시킴

–超越(초월)–주르허 대규모 화력 실탄 훈련, 원양작전해양훈련, 해–공군 기동화 실전훈련, 동/남중국해 경계순찰 비행, 紅劍(홍검)공중대항훈련, 로켓군대항검증연합화력집중타격훈련, 天劍(천검)대규모집중화력훈련 등을 실시함

○ 핵심 안보영역이익 수호

–중국 핵무기 역량은 국가주권과 안보수호의 전략적 초석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핵무기 및 유관시설 분야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전략적 핵무기 능력을 제고시키고 전략적 국가안보이익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 균형안정을 수호함

–우주안보는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로 국제우주개발등에 적극 참여하여 유관 기술과 역량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우주분야 첨단기술자산 보호와 우주전 능력을 제고시킴

–사이버 안보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한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중국군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안보역량 건설을 가속화시켜 사이버 안보 방어능력 강화 및 인터넷–네트워크 공격 방지 등을 통해 국가 사이버 주권 안보를 적극 수호하고 기술적 역량을 제고시킴

○ 대테러전 임무 완수

–중국은 모든 일체의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무장능력을 대거 동원하여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조직 소탕작전을 통해 2014년 이래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테러조직 약 1,588개 및 테러조직원 약 12,995명을 소탕하고 체포함

-무장경찰부대는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요 국가시설 보호, 도시순찰업무, 유관 국가기관사법집행 협조, 범죄조직 소탕 및 대테러전 수행 등을 적극 수행하여 평안(平安)중국 건설에 이바지함

○ 중국의 해외이익 수호

-중국의 해외이익은 국가이익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해외 거주 중국 공민, 조직 및 기업, 기관들의 안보와 정당한 권익 보호는 중국군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로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를 위해 유관국가들과 군사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17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외군사기지를 구축하고 4회 해상 선박호위활동을 진행하고 약 100여명 해상선박호위활동 장병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구호재난 활동 등을 전개함

○ 긴급구조재난활동 참가

-군 긴급구조재난활동 활동 법률에 의거 국가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중요물자 운송, 도로 및 교량, 터널 복구, 해상재난구조활동, 전염병확산통제, 의료지원, 화생방 구조대응 등의 각종 임무를 수행함

-2012년 이래 긴급구조재난활동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원 약 95만 명이 동원되어 운남성 누디엔(魯甸) 대지진구조, 장강 중하류지역 폭우홍수재해구조 활동 등 각종 국가급 구조재난활동에 적극 참여함

4. 개혁 중의 중국 국방 및 군대(改革中的中國國防和軍隊)

○ 군 규모 구조 및 역량 편성 최적화

-군의 대규모 비율조정, 역량구조 배치재편, 작전부대편성조정, 신형작전역량재편, 대학(연구)역량 배치 최적화, 군사과학연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함

-중국특색의 현대군사역량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존 양적형 군대에서 질적형 군대로 전환하고 인적밀집구조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밀집구조로 대규모 개편을 진행하여 약 30만명을 감축하여 20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함

-군사력 역량 강화차원에서 전투부대를 재조정하여 기존의 육군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축소하고 전군 주요작전지휘체제를 '軍(군)-旅(여)-營(영)'으로 축소시켜 작전 지휘체계를 단순화시켜 효율성을 제고시킴

-현재 군사과학연구기구들도 대거 개편 중에 있으며 기존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산하 77개 학교 및 연구기관(국방대학, 국방과학기술대학 등)들을 44개로 축소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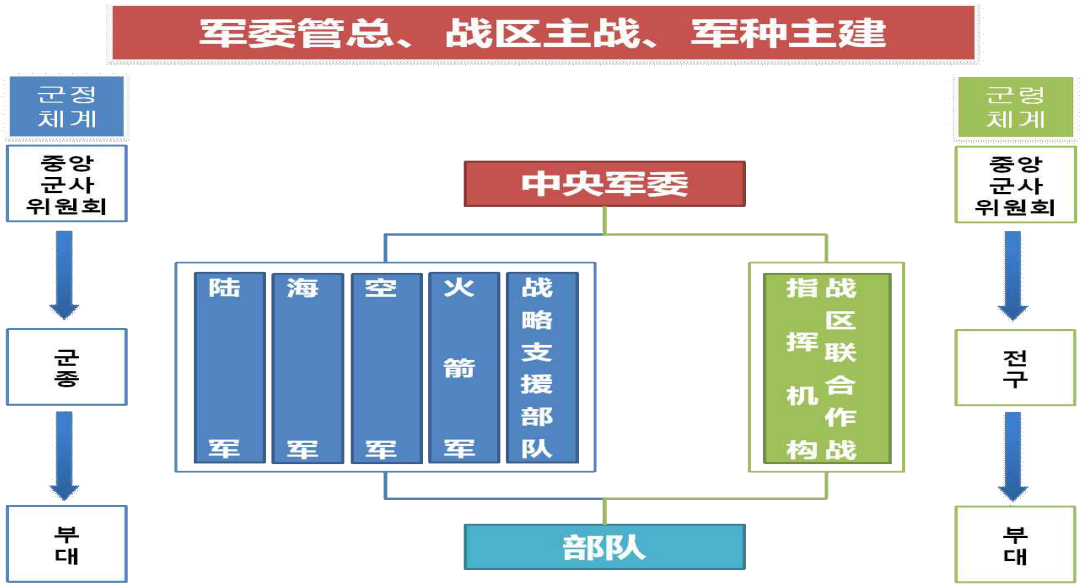
중앙군사위원회 군사과학연구지도위원회를 설립하여 군사과학원, 군종별 연구원 등을 새롭게 재조정함

○ 작전지휘체제 개편

-전 세계 군사개혁과 발전흐름의 요구에 따라 작전지휘관리체계 개혁을 통해 "軍委管總、戰區主導、軍種主建 : 군위는 총괄 관리, 전구는 작전 주관, 군종은 군 건설[현대화]" 기조 하에 중앙군위의 통일된 총괄관리와 전략적 조치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 새로운 군대지휘관리 및 작전 지휘체제를 구축함

-과거 중앙 군사위원회 산하 총정치부, 총참모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4총부를 15개 직능부문 기구로 완전히 재조정하여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지휘와 명령전달체계를 주도하여 '중앙군위-군종-부대' 새로운 지휘관리체계로 개편함

[그림 1] 작전지휘체제 개편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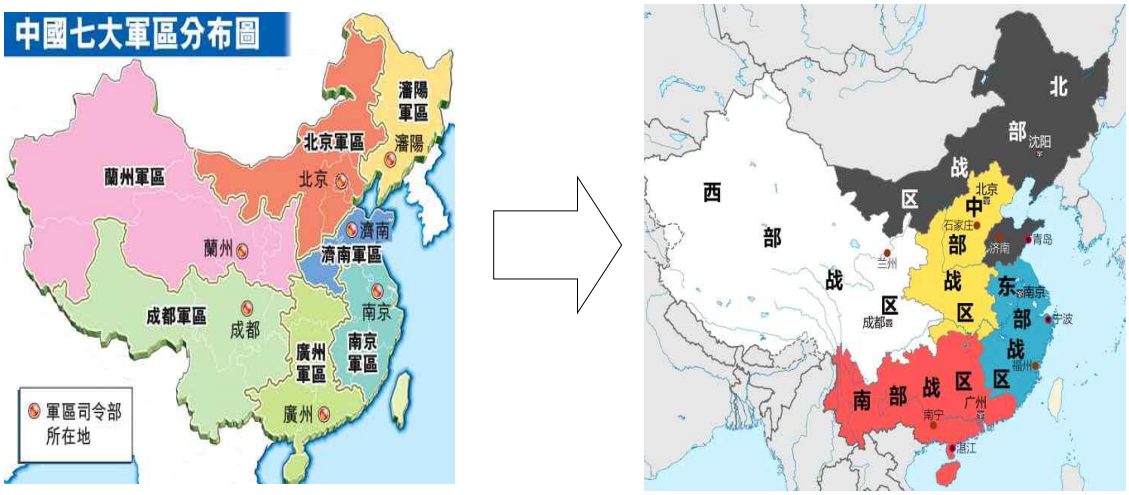


주 요 변 화		추 진 내 용
군위관총 (軍委管總)	연합, 합동작전 체제 강화	연합작전지휘센터(聯合作戰指揮中心)설립 중앙군위연근부대(中央軍委聯勤部隊)창설
전구주전 (戰區主戰)	5대 전구체제 정립 독립작전수행	동, 서, 남, 북, 중부 전구창설
군종주건 (軍種主建)	5대 군종체제 확립 군종별 관리시행	육군지휘기구 창설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창설

16) 정재흥 편,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 (경기: 세종연구소, 2018), pp. 93-94.

-새롭게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구축하여 고효율 연합작전지휘일체화를 실현시키고 기존 심양, 북경, 란저우, 제남 남경, 광저우, 청두 7대 군구에서 벗어나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중부 5대전구로 개편함

[그림 2] 7대 군구에서 5대 전구로 개편[17)]



군구(軍區)	전구(戰區)	
책임구역 내의 육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주임무로 수행(중국의 大육군주의)	합동작전	책임구역 내의 육·해·공·로켓군·전략지원부대·민병·예비역 등 모든 무장역량을 통합지휘(전구합동작전지휘기구)
임무 복잡함. "건설-관리-지휘"를 모두 관리하여 행정관리 소요 많음	직능 단순·집중	임무 단순함. 전쟁(투) 관련 업무만 전문적으로 다룸. 합동훈련과 합동작전만 책임
책임구역 내의 육군 집단군 및 성급군구 지휘 책임	훈련주관	책임구역 작전 방향에 대한 합동훈련, 합동작전만 책임. 집단군에 대한 건설 및 관리는 신설된 육군사령부에서 책임.
성군구 지휘, 국방동원 전개, 예비전력 건설 등의 업무 책임	행정동원 감소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에서 담당

○ 군사정책제도개혁 추진

-당의 군대건설과 제도개혁 심화, 군사역량운영 정책제도 혁신, 군사역량건설 정책제도 재편, 군사관리정책제도 개혁 등을 추진함

-당의 절대적 군대 지도를 위해 '신시대 당군대의 건설에 관한 결정'을 제정하여 군대에 대한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규율건설, 행동건설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17) 정재흥 편, 『시진핑 집권 2기의 이슈와 전망』(경기: 세종연구소, 2018), pp. 99-100.

-군사역량건설재조정을 위한 정책제도 건설과 사상해방 및 전투력 향상차원에서 '국방교통법', '군사시설보호법,' '군무원규례' 등과 같은 새로운 각종 법률제도를 반포하고 군관직업화제도 추진, 우수군인특별보상 등을 통해 군사훈련, 군장비발전, 후근건설, 군사과학기술연구 등 발전을 도모함

○ 개혁 조정이후 각 군종 및 무장경찰부대

-육군은 기동화작전, 입체공방 전략을 토대로 지역방어형에서 전역작전형으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현대화된 신형육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동화작전부대, 국경부대, 경호경비부대 등이 포함되며 5대 전구의 관할 하에 전구육군, 신장군구, 서장군구 등이 있으며 동부전구육군소속관할은 71, 72, 73 집단군, 남부전구육군소속관할은 74, 75 집단군, 서부전구육군소속관할은 76, 77집단군, 북부전구육군소속관할은 78, 79, 80 집단군, 중부전구 육군소속관할은 81, 82, 83 집단군으로 구성

-해군은 근해방어, 원해방어 전략을 토대로 근해방어형에서 원해방어형으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해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잠수함부대, 함정전투함부대, 해공군부대, 해병대, 해안방어부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부전구해군함대, 남부전구남해함대, 북부전구북해함대, 해군 해병대 등으로 구성

-공군은 空天(공천)일체전, 공수겸비(攻防兼備)전략을 토대로 국토방어수호에서 공수겸비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공군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항공부대, 낙하산부대, 육상방공부대, 레이다부대, 전자대항부대, 정보통신부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전구별 공군산하 항공병여단, 지대공미사일여단, 레이다부대여단 등으로 구성

-로켓군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핵 무기위협과 핵무기 반격능력을 토대로 중장거리정밀공격역량을 강화시켜 나가 현대화된 강력한 로켓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핵무기탄도미사일부대, 재래식탄도미사일부대, 핵/재래식 탄도미사일지원부대 등으로 구성

-전략지원군은 체계융합과 군민융합을 토대로 주요 정보영역 초고속 발전을 통해 새로운 전쟁 역량의 일체화를 가속화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전략지원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장환경지원부대, 정보통신지원부대, 정보안보방어부대, 첨단기술실험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

-무장경찰부대는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 임무를 위해 순찰, 치안, 대테러, 해상권익보호, 사법집행, 재난구조활동 등 능력을 강화하여 현대화된 강력한 무장경찰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치안 담당 보안부대, 기동부대, 해경부대 등으로 구성

○ 국방과 군대 전면건설 추진

–사상정치건설을 시종일관 군대 각종 건설 선두에 배치, 국방과학기술과 군사이론 혁신 발전 추진, 현대화 무기장비체계 구축, 전투를 위한 현대화 병참 건설, 전투전략관리 강화, 법에 따른 엄격한 군대관리, 당 기풍 청렴건설, 반부패 투쟁 추진 심화, 국방동원 현대화 건설 등을 추진함

–2014년 12월 '새로운 형세 하의 군대정치공작에 관한 몇가지 문제의 결정'발표를 통해 군대 정치 공작을 새롭게 정돈하였으며 2018년 8월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새로운 시기 당의 군대영도와 건설공작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정신, 능력, 혈기, 인품을 갖춘 새로운 혁명군대로 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

–무기장비 현대화추진 차원에서 무기장비체제구조를 최적화시키고 총괄적으로 군종별 무기장비를 발전시켜 나가 전면적인 표준화, 체계화, 통용화로 제고시키고 점진적으로 구시대 장비는 퇴출시키고 첨단기술장비로 대거 교체시켜 나감

※ 15식 탱크, 052D구축함, 젠-20전투기, 동펑-26 중장거리미사일 등 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하여 새롭게 배치함

5. 합리적이고 적절한 국방비 지출(合理適度的國防開支)

○ 2012년 이후 중국 국방비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방비는 국가 경제 규모와 재정지출에 맞춰 합리적 수준의 증가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국민총생산(GDP)대비 중국의 국방비는 1979년 최고 5.43%에서 2017년 1.26%까지 감소하였고 지난 30년 동안 2% 내외를 유지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국방비는 총 6691.92억 위안에서 10432.37억 위안까지 증가되었으나 국민총생산(GDP)대비 국방비의 비율은 1.2%이고 국가재정지출평균대비 5.26%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국가재정지출과도 부합하며 증가함

○ 세계 선두국가 국방비와 비교

–2017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및 국가재정지출 대비, 국민1인당과 군인 1인당 소득규모 등을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국방비 지출은 세계 제2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4에 불과함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1.3%로 이는 미국의 3.5%, 러시아의 4.4%, 인도의 2.5%, 영국의 2.0%, 프랑스의 2.3%, 일본의 1.0%, 독일

의 1.2%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전 세계 6위이며 유엔(UN)안보리상임이사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임

6.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積極服務構建人類命運共同體)

○ 유엔헌장 취지와 원칙 굳건히 수호

– 중국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유엔헌장 취지와 기본 원칙을 수호 및 견지하고 다자주의, 국제관계의 민주화, 글로벌안보거버넌스 구축, 군축군비통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식 방안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주어진 역할을 발휘함

–중국은 한반도 문제, 이란핵문제, 시리아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목을 받고 있는 핵심이슈의 정치해결을 위해 패권주의, 일방주의, 이중잣대 등을 반대하며 유엔(UN)안보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함

※ 중국은 미국의 대만무기판매, 중앙군사위원회장비발전부와 담당책임자 제재, 중국의 영해, 영공 무단침입과 각종 정찰활동과 도발 행위 등을 결연히 반대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중단을 줄곧 촉구함

○ 평등신뢰, 상호협력의 신형안보동반자관계 구축 추진

–중국은 불충돌–불대결, 상호존중, 협력공영의 원칙하에 미중군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며 2014년 중요 군사행동상호통보신뢰조성기제와해공군우발충돌방지규칙양해비방록, 2015년 군사위기통보, 공중우발충돌방지부속협의서, 2017년 외교안보대화, 연합참모부대화 등 전략적 소통을 통한 위기관리방지와 육해공군 부문별 대화와 교류를 진행함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운명공동체 구축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군사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년 군종별 사령관 이상 고위급 대표단들을 파견하고 17개 주변국가들과 국방안보협상수립, 다양한 업무회의추진 및 소통채널유지 등을 통해 전략적 상호신뢰를 부단히 강화시켜 나가는 중임

○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 추진

–2001년 6월 중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지역안보협력조직인 상하이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상하이 정신을 모색하고 상하이 협력조직 운명공동체 구축 추진을 통해 신형국제관계를 본격화함

–중국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제도 구축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아시아 신안보관 수립을 줄곧 제창하였으며 아시아지역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함

○ 영토문제와 해양경계선 분쟁 적절히 처리

–중국은 친(親)–성(誠)–혜(惠)–용(容)주변외교개념을 토대로 영토문제와 해양경계선 분쟁을 협상을 통해 협상과 평화적 해결을 줄곧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14개 육상을 맞댄 주변국 중 12개국가과 국경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주변8개국가들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

–중국은 영토문제 및 해양경계선 분쟁 관리와 주변국들과의 상호신뢰 증진 차원에서 중국–아세안 국방장관 핫라인 제안수립, 베트남 및 한국 국방장관 직통전화 구축, 정기–비정기적 영토접경국가 해당군부대들과의 전화–팩스연락 채널, 국경수비회담, 연합공동순찰 등을 진행함

○ 국제 공공 안보재 적극 제공

–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참여하는 국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가장 많은 평화유지군과 유관 부대를 파견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약 24회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3.9만명 파병)하였으며 이중 중국 군인 13人은 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희생됨

–그동안 중국은 자연재해, 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국제재난구조활동과 인도주의 원조 참여차원에서 재난발생국가들에 의료진과 재난구조팀을 파견하고 각종 물자들을 제공하여 재난구조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며 국제사회와 역내국가들과 대테러협력추진차원에서 상하이협력기구 조직 내 국제대테러협력을 강화하고 대테러 훈련, 불법무기운송(총기탄약 및 폭발물)단속, 국제대테러정보공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음

Ⅳ. 주요 정책 시사점

1. 국방 분야

○ 중국의 국방백서는 국방안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시각이 반영된 공식문건으로 기본 안보관과 대외인식 등을 담고 있어 작금의 중국 국방안보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18)]

- 특히 지난 20년간 12여개의 국방백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되면서 중국의 기본적인 안보관, 대내외 안보인식변화, 국방비 현황,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정책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어 중국식 군사안보담론을 적극 주도하기 시작함

○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전략적 경쟁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에 더욱 많은 투자를 밝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 내부 부패척결, 군제도 개혁, 군대 체질 개선, 군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2049년까지 세계적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을 밝힘

- 중국군의 5대 전구로의 개편과 함께 연합작전지휘센터 창설이후 과거에 비해 중국군의 군종별 통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역내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군사안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대중포위전략에 적극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①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강조, ②대만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무력분쟁 대비를 위한 전투형 군제 개편, ③국가주권과 안보를 적극 수호하는 차원에서 비대칭 무기 개발(사이버, 우주, 미사일 등) 및 원거리 투사능력 확보(핵 항모, 전략폭격기 추가건조 등)를 적극 추진함

-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포위망에 맞서 제로섬(zero-sum)사고를 배제하고 충돌과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절대안보(絕對安全)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보다 대등한 양국관계설정을 위해 공동안보(共同安全)에 기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새로운 미중 강대국 관계)구축을 제시함[19]

○ 시진핑 지도부가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을 통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본격화하자 미국 역시 대중전략차원에서 미중무역전쟁 발발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으면 전 방위적인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함[20]

-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기존 미국의 주도질서에 대한 현상타파 혹은 도전으로 상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대응할 경우 역내지역에서 군비경쟁, 군사적 충돌 혹은 대리(代理)세력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함

---

18) 중국의 국방백서는 강대국과 주변국, 중진국과 개발도상국, 중국국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안보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 기능 확산을 통해 자국의 기본 입장과 의도를 보여줌

19)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대미관계 구축을 위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는 첫째, 강대국관계에서 대립과 충돌(不沖突、不對抗), 둘째, 상호존중에 기반하며(相互尊重), 셋째,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추구(合作共贏)을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미중간 협력과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임

20)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정함

○ 현재 중국은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能打勝仗)'인 강군꿈(強軍夢) 실현을 위해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승리능력 제고'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과거에 비해 군사력 현대화와 대외 군사 영향력 확대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21)]

- 특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대응 및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 현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쟁승리뿐만 아니라 '억지(deterrence)'를 통한 '전쟁이외 군사작전(MOOTW)', 사이버, 특수전, 우주, 해양, 테러 등 새로운 안보분야까지 범위와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

○ 현재 중국군은 첨단 군사기술로 무장한 현대화 군대 달성을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전략무기(중장거리 핵·미사일) 현대화, 비대칭 무기 강화, 신속대응작전능력, 정보전(IO/IW), 사이버 분야 등에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연구개발로 미국과의 군사기술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음

- 이미 중국은 비대칭 전략 강화차원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의 중장거리 정밀타격능력 개선과 생산, 미군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공해전투(AirSea Battle) 대응을 위한 신무기 개발, 전략조기경보, 군사항공우주, 미사일 방어, 사이버 분야 등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연일 싸워서 이기는 강군몽(强军梦)강조 이후 국방첨단-현대화 차원에서 해/공군력, 미사일, 사이버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 분야에서 매우 빠른 속도의 발전과 역량 향상이 나타남

- 더욱이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력을 바탕으로 매년 약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군사방어전략 차원에서 해/공군 현대화, 비대칭 전력 강화(중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등)를 추진하여 전투능력 및 역내 주변 지역 영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해/공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합동능력을 확보하여 적어도 2049년까지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일류 군대(能打仗、打勝仗)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전략적 군비경쟁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22)]

---

21) 그동안 중국은 전쟁 혹은 분쟁의 억제(deterrence)에 군사전략 주안을 두었으나 미중패권경쟁 격화로 인해 핵심이익(core interest)수호차원에서 강압(coercion)을 통한 전쟁수행(warfighting)능력도 크게 개선됨

22) 최근 중국은 대만, 동/남중국해, 한반도, 핵심이익(core interest)수호, 에너지 자원 확보 및 해양진출 등을 위한 차원에서 해/공군력, 미사일 능력 강화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짐

- 결국 2049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여 미국을 넘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중국의 꿈 실현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이상 머지않아 미중간 본격적인 군사안보 대결 및 군비경쟁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2. 한반도 분야

○ 최근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전략적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배치, 역내 미사일방어(MD), 중거리핵전력조약(INF)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가능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미(한미일)3자 관계 등을 놓고 중러 및 북중관계 공고화를 통한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선제적 개입과 대응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역내 군사력 증강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사드(THAAD)배치, 일본은 전후질서 탈피,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공고화와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고 지적함

○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대응,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대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군사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미중간 군비경쟁, 한반도/대만/남중국해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있어 보다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됨

- 더욱이 중국이 강조한 전략적 안보이익(미국 주도의 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남중국해 문제 개입,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에 한국(혹은 한미동맹)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한중간 국방안보 대화채널을 조속히 구축하여 긴밀한 정책소통과 의견교환 등이 요망됨

○ 한국은 우호적인 미중관계 촉구, 조화로운 한중-한미관계 유지, 안정적인 북미/남북 관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미, 대중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판문점 선언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논의도 적극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정책적 노력과 창의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더욱이 미중 경쟁 격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상황을 매우 냉철하게 인식하고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차원에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북중 3자 대화를 시작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에 이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3. 정책 시사점

○ 2019 국방백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 군대(能打仗、打胜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동북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함

–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대만, 동/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군사전략을 갖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제1해상 도련선내로 미군의 군사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A2/AD 토대로 해/공군/미사일 부대 위주로 군사력 증강과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강군꿈(強軍夢) 실현을 위해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현대화 차원에서 육/해/공군/로켓군, 우주/정보/사이버전, 민군합동능력 등을 확보하고 군내 부패척결, 군제도 개혁, 군체질 개선, 군장비 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 넘는 세계 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군사안보전략을 밝힘

– 이미 중국군의 5대 전구 개편과 연합작전지휘센터 창설, 군의 현대화-정보화-합동화 강화 이후 중국군의 통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 추세와 국방안보전략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전략적 대응 방안마련이 요망됨

○ 향후 중국군 개편과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적, 전술적 대응을 마련하고 중국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활발한 소통 차원에서 한중 국방안보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임

– 더욱이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중국군 개혁과 군사력 증강이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대중전략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과감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미중관계 악화, 인도-태평양 전략 본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과의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역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적 대결구도가 다시금 출현되지 않도록 다자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 다자안보평화체제 구축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

– 특히 한반도 문제로 인해 역내 지역에서 군비경쟁 혹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한중 군사 핫라인 활성화,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한중, 한중일, 한미중, 한중러, 남북미, 남북중 3자 국방안보분야 소통협의채널 구축을 조속히 가동하여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조치마련이 요구됨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